

글로벌 경쟁 가능한 국내 제약기업 탄생 지원

‘규모의 경제’ 확보와 기업 신기술 취득 통해 해외 진출 밑거름 되길

글_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강준혁 사무관

제약기업을 위한 전용 펀드 조성의 필요성

12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내 제약 산업은 그간 제약주권 확보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여 온 반면 신약개발을 통한 해외 수출보다는 제네릭 제품 위주의 국내 시장에 안주해 온 측면이 있다. 그러나 최근 한-미, 한-EU FTA 체결, 국내 일괄 약가인하 등으로 국내 제약 산업은 경영 환경상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¹⁾,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업의 혁신적 성장 전략과 산업 생태계의 변화와 함께 정부의 산업 육성·지원책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.

제약 산업 분야에 있어 민간 자본 유치와 건전한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중 하나가 ‘글로벌 제약 산업 육성 펀드’(이하 ‘펀드’) 사업이다. 타 산업 분야에 비해 제약 산업이 가지는 장기간 투자와 성공의 불확실성은 정부의 다양한 펀드 육성책에도 불과하고 외면되어온 것이 사실이다. 제약 산업 특성을 고려한 펀드 조성 및 운영을 통해 혁신역량에 비해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·벤처 제약사로 하여금 단기간 내 신약개발기술 습득 및 해외 진출기반 마련을 위한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.²⁾ 주요 투자 분야는 해외 유망기업과의 기술제휴, M&A, 해외 영업망 및 판매망 확보가 될 것이다.

최근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여러 계획이 발표되면서 각종 실태조사와 업계 간담회를 통해서도 해외 기술 획득과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지원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.³⁾

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 사업의 개요

• 사업의 구조

동 펀드사업은 정부가 초기투자자(anchor investor)로 참여하는 공공성을 띤 사업으로서, 정부가 사업 관리규정 마련 및 관리기관을 지정하면, 관리기관은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, 투자 등 펀드를 직접적으로 운용할 운용사를 공개 모집,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.

• 사업참여자

보건복지부는 복지부 고시 등을 통해 관리규정과 사업계획을 마련하며 펀드 출범시에는 관리기관을 통해 확보된 정부 예산(‘13년 200억원)을 출자하게 된다.

관리기관은 펀드사업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며, 운용계획 수립과 운용사 선정 및 실적 심의 등을 담당하고, 펀드의 결성부터 해산까지 사업관리를 대행하게 된다. 따라서 관

1) 최근 약가 재산정방식 변경(2012년 4월)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제약사의 투자 감축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. 약가 인하 효과로 연 1.7조원 매출 감소가 예상되며(복지부, 2012.4월), 제약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24.7%·영업이익률 3.2%p가 감소하였다.(2012년 3분기누적, 상장제약사 60개대상), 보건산업진흥원 각종 자료.
 2) 해외에서도 중국·일본·프랑스에서는 국가 주도로 자국 기업의 해외 유망기술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M&A 자금 지원 중이며 특히 중국의 경우 바이오산업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, 국내외 기업 M&A·기술 제휴 통해 매출 78억불 이상 제약사 5개 육성 중이다.(2004~2007년 M&A 62건 → 2008~2011년 127건, 105% 증)
 3) 국회 보건복지위 제약산업 육성 간담회(2012.8월) 업계 주요 건의사항, 제132차 비상경제대책회의(VIP주제)「제약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」반영사항 등





리기관은 펀드가 주로 투자하게 되는 제약산업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므로, 제약산업 전반에 걸친 전문성, 특히 국가 R&D관리와 기술이전, 제약 해외진출 지원 등과 연계·발전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관리기관으로 보건산업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지정할 계획이다.

운용사(GP, General Partner)는 실적에 근거한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펀드심의위원회에서 심의, 선정하게 되며, 구체적인 자금조성계획 및 투자대상 발굴을 위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, 투자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등 공동 성장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이다.

• 투자방식과 운용

펀드는 조성 취지에 따라 제약 산업의 투자 활성화 촉진과 투자 자원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방식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.

우선 해외M&A, 또는 기술과 시설, 판매망 확보 등을 위해 투자하는 국내 제약기업에 펀드가 투자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. 이 방식은 제약업의 투자지원 취지에 가장 적합하나, 대상 제약사가 투자받은 자금을 정책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추가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. 이를 위해 사전에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성장가능성 등 요건을 갖춘 투자 후보사를 선정 한 후, 해당 제약기업의 해외투자 이행에 대한 협약 등을 거쳐 펀드가 기업 지분에 투자하는 등의 절차를 설정할 계획이다.

또 다른 투자방식은 해외유망기업 또는 기술에 투자하는 펀드-기업 '매칭' 투자이다. 이는 국내 제약사가 취득을 원하는 해외 투자대상 기업(기술)을 펀드가 심사하여 소요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투자하는 방법이다. 그 외에도 펀드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, 제약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투자 방식을 허용할 계획이다.

• 펀드자금 조성

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는 2013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의 초기 출자금 200억원을 기반으로 추가로 펀드자금 조성이 요구된다. 이를 위해 정부투자 외에 국내외 정책자금 및 민간 자금을 유치해야하는 과제가 있다. 국내에서는 연기금 및 정책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해외 자금으로는 제약·바이오분야 전문 투자펀드와의 협력 및 자금유치에 유리한 다양한 조성 조건을 검토하고 있다.

전망 및 기대효과

최근의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혁신형 제약기업들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을 위한 신약 R&D 투자, 해외진출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내 제약산업의 미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.⁴⁾ 제약기업 대상 수요조사 결과 향후 필요한 해외 투자 비용이 동 펀드 조성액을 상회한다는 사실 또한 국내 제약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펀드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증명한다 할 것이다.⁵⁾ 올해 처음으로 조성·운용될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는 M&A를 통한 국내 기업의 대형화, 유망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혁신, 해외 영업망 및 생산시설 확보를 통한 수출 확대 등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게 될 것이다. 앞으로 정부, 민간투자자의 투자 지원과 국내 제약기업의 혁신 기술이 합작하여 글로벌 성공사례가 하나씩 쌓여 나간다면 우리 제약산업의 정책목표인 2020년 글로벌 제약 7대 강국 도약 뿐 아니라, 그 이상의 비전도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. □

4) 신약 R&D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36.6% 증가하였고(2012년 3분기누적기준, 상장제약사 60개 기준, 전년 대비 수출 증가는 15.1%에 달하였다.(2012년 10월 누적, 전체제약사 기준)

5) 제약기업들은 향후 5년간 13건의 M&A와 46건의 기술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, 이에 필요한 자금은 총 3,220억원으로 M&A는 건당 248억원, 기술도입은 건당 4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 한국보건산업진흥원, 제약기업의 해외M&A 및 전문인력 수요조사, 2012년8월.